

우리나라 가구의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정기조사 분석 2020년 7월

김상효 문동현 지정훈 | KREI 농식품시스템연구부

개요

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의 「2020년도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」을 수행 중임. 「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」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농식품 소비 및 식생활 현황을 정기적으로 추적 조사할 예정이며, 이번 호에서는 첫 번째 정기조사 분석결과를 소개함.

첫 번째 정기조사로 진행된 2020년 7월 조사에는 성, 연령, 거주지역, 교육 수준, 가구 구성 등의 측면에서 대표성 있는 표본 2,066명의 소비자가 응답하였음. 「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」의 대상 품목들을 중심으로 소비 현황을 조사하였으며, 이 밖에도 다양한 식생활 실태에 관한 문항도 포함하여 조사함.

이번 웹진에서는 7월 조사결과를 분석하고, 다음 달 웹진부터는 7월 정기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다양한 지수(index)들을 개발하여 매월 공표할 예정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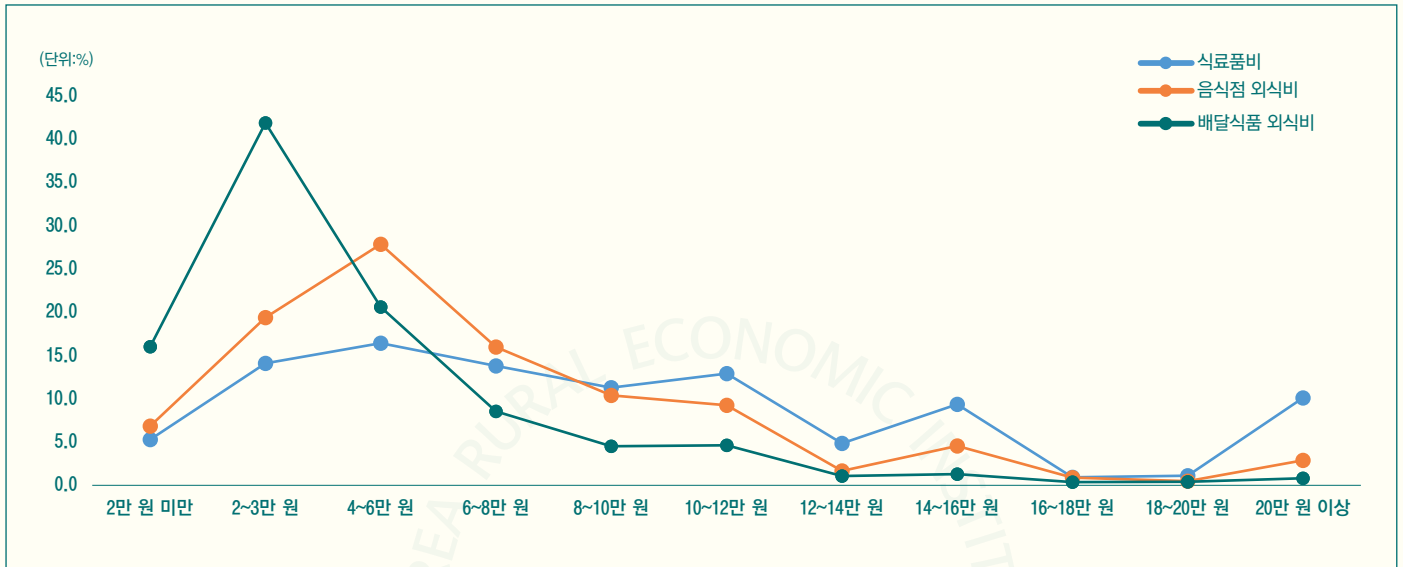
종합의견

- 우리나라 가구는 가정식 식료품에 일주일 평균 92,305원을 지출하고 있음. 가정식 식료품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높지만, 전체 식료품의 80% 이상을 온라인에서 구입한다는 응답자 비중도 10.2%로 낮지 않은 수준임.
- 우리나라 가구는 외식/배달주문에 일주일 평균 111,790원을 사용하고 있음. 음식점에 방문할 경우 '한식 육류요리 전문점'이나 '육류요리 전문점을 제외한 한식음식점'을 1순위로 방문한다는 응답 비중 합이 66.3%로 크게 높은 특징을 보임. 음식점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에는 영양정보보다는 농축산물 식재료의 원산지정보를 확인한다는 비중이 크게 높았으며, 특히 육류(61.9%)의 원산지정보를 확인한다는 비중이 중요 채소류(47.9%)보다 높음.
- 우리나라 가구의 식생활 현황을 조사·분석한 결과, 전체의 68.7%가 가족과의 식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, 남성보다 여성이, 연령이 증가할수록, 가구 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족과의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.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~30대는 바람직한 식생활 구성에서 외식이나 배달/테이크아웃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연히 높게 인식하는 특징을 보임. 규칙적인 식사, 과일/채소 섭취, 다양한 식품 섭취 등의 식생활 영역에서 중요성 인식은 대체로 높으나 실천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식품안전성 지표점수는 이용가능성, 구매접근성, 구입충분성 3개 문항 평균 3.63점을 기록함.

일주일 평균 가정식 및 외식 지출액

온라인으로 전체 식료품의 80% 이상을 구매한다는 가구 비중이 10.2% 수준

- 가정식 식료품 구입에 일주일 평균 4~6만원을 지출한다는 가구 비중이 16.4%로 가장 높음
- 음식점 외식비 또한 일주일 평균 4~6만원을 지출한다는 가구 비중이 27.8%로 가장 높음
- 한편, 배달주문 외식비로는 일주일 평균 2~3만원을 지출한다는 가구가 가장 많음(41.8%)
- 이 수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식품비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음



자료: KREI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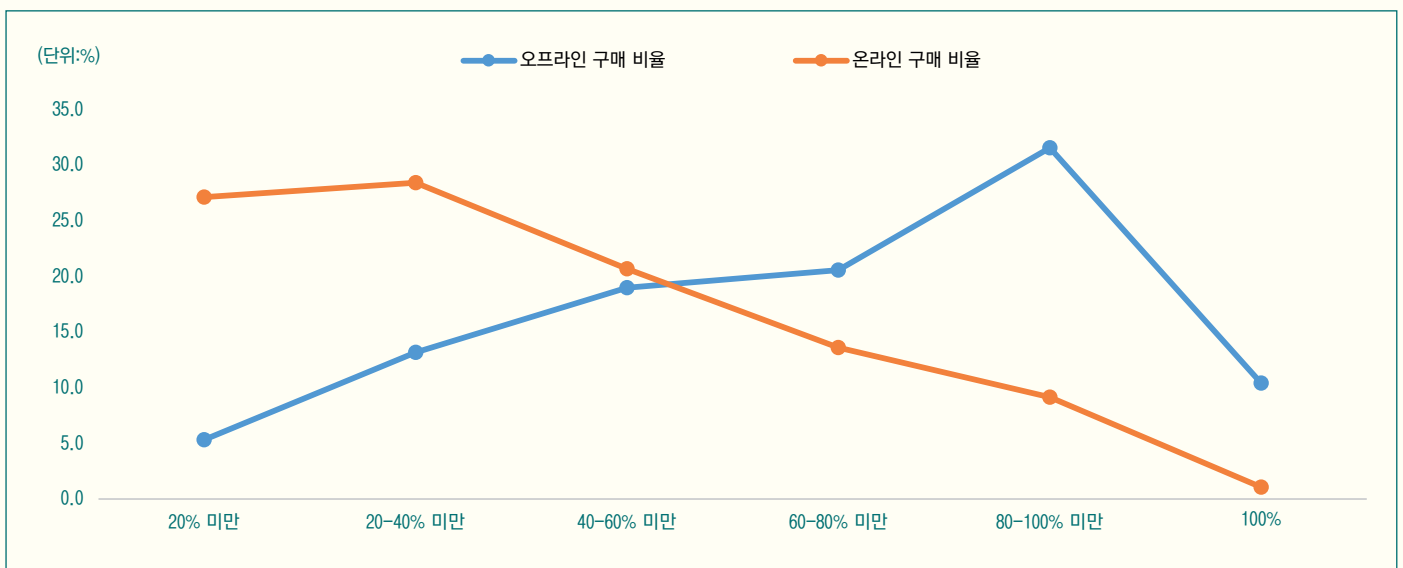
가구의 온라인/오프라인 식료품 구매 비율

온라인으로 전체 식료품의 80% 이상을 구매한다는 가구 비중이 10.2% 수준

- 전체 식료품의 20% 미만, 20~40%를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는 가구 비중은 각각 27.1%, 28.4%로 과반 이상을 차지

반면, 전체 식료품의 80% 이상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한다는 가구 비중은 42.0% 수준

- 전체 식료품의 80~100%, 100%를 오프라인에서 구매한다는 가구 비중은 각각 31.6%, 10.4%



자료: KREI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

식료품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

온라인, 오프라인 관계 없이 식료품 구매 시 맛/식감, 가격, 모양/형태/신선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

- 오프라인에서 식료품 구매 시 '모양/형태/신선도'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, 이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
- 온라인을 통해 식료품을 구매할 때에는 '가격'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. 이는 온라인의 경우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

[표 3] 식료품 구매 시 식품류 특성 중요도

단위: 점, 5점 평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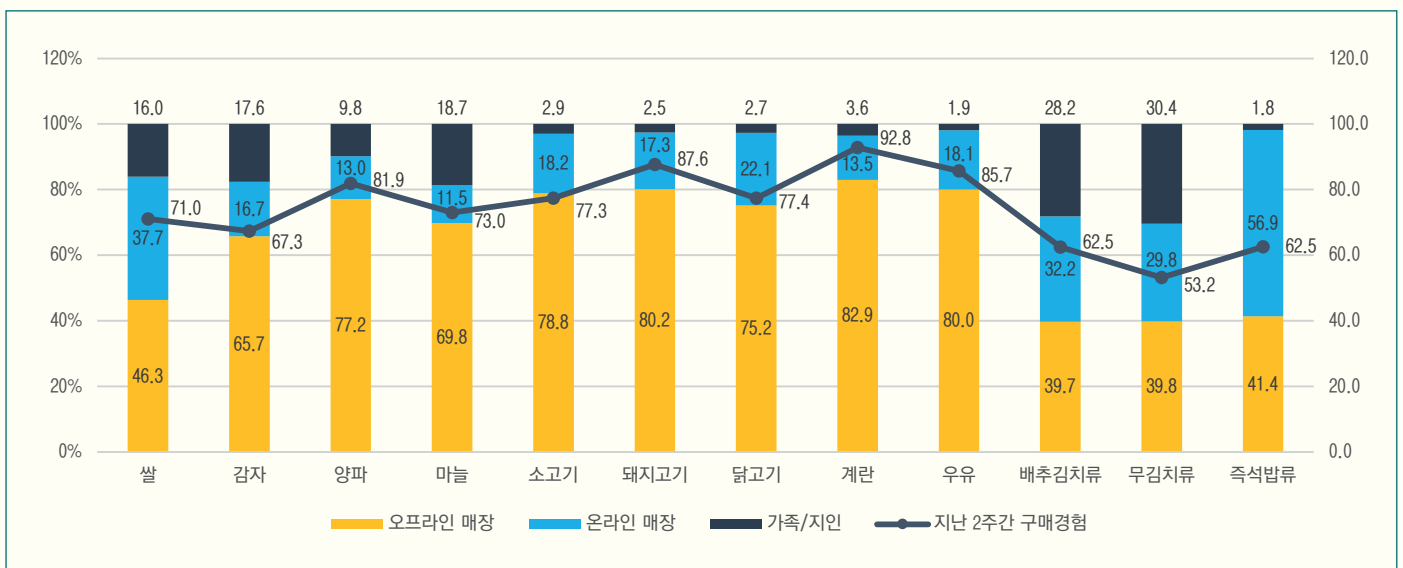
	오프라인	온라인	평균
맛/식감	4.33	4.21	4.27
모양/형태/신선도	4.44	4.28	4.36
가격	4.21	4.36	4.28
조리/손질 편리성	3.81	3.97	3.89
영양성분/칼로리	3.64	3.63	3.63
신품종/신제품	3	3.06	3.03
원산지(국산)	3.92	3.85	3.89
사회적 책임 (공정거래/동물복지)	3.32	3.32	3.32
친환경(유기농/무농약)	3.46	3.43	3.45
식품안전(HACCP/GAP)	3.93	3.95	3.94
브랜드/제조업체	3.5	3.6	3.55

자료: KREI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

가구의 온라인/오프라인 식료품 구매 비율

지난 2주간 구매경험은 계란, 우유가 매우 높으며, 양파/마늘도 높은 수준, 김치류는 가족/지인으로부터 조달받는 비중이 높고, 쌀, 즉석밥류, 김치류 등은 온라인 매장 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

- 지난 2주간 구매 경험은 양파 81.9%, 마늘 73.0%, 감자 67.3%, 쌀 71.0%
-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비중은 즉석밥류(56.9%), 쌀(37.7%), 배추김치류(32.2%), 무김치류(29.8%) 순으로 높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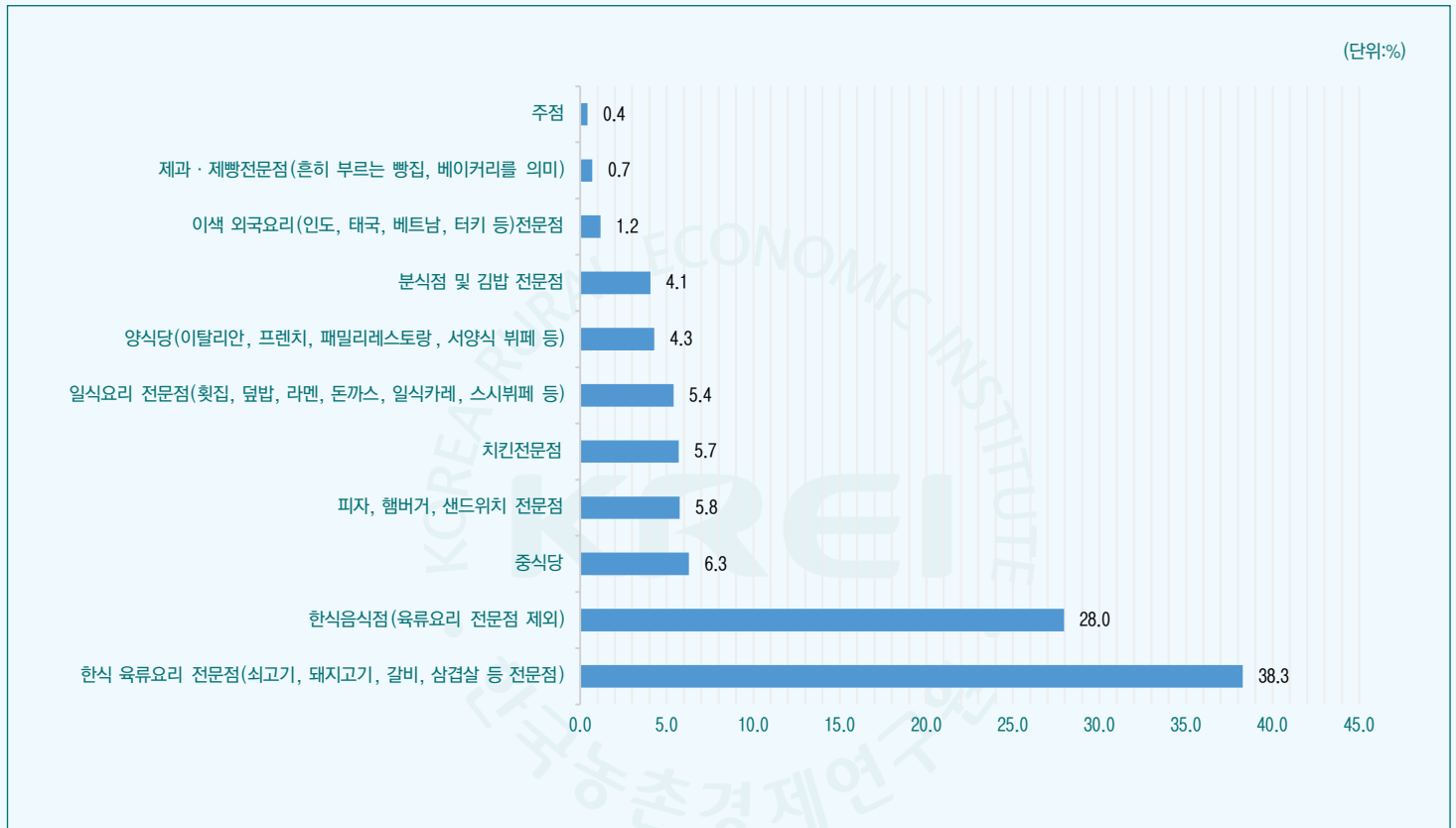
자료: KREI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

02 우리나라 가구의 음식점 및 배달 음식 소비

음식점 방문 1순위 업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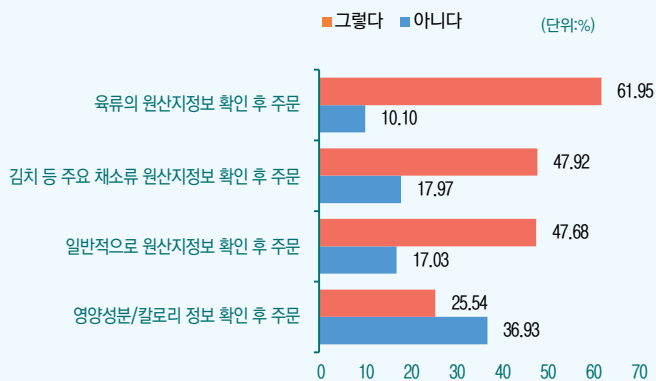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 가구는 음식점에 방문할 경우 '한식 육류요리 전문점'이나 '한식음식점'에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

- '한식 육류요리 전문점'을 1순위로 방문한다는 가구 비중은 38.3%
- '한식 전문점(육류요리 전문점 제외)'을 1순위로 방문한다는 가구 비중은 28.0%



자료: KREI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

음식점 방문 시 원산지 확인 행태



전체 응답 가구의 25.5%는 음식점 방문 시 영양성분/칼로리 정보를 확인한 후 주문하며, 원산지 확인 비중은 '육류' 61.9%, '김치 등 주요 채소류' 47.9%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

-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에는 영양정보보다는 원료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상대적으로 중요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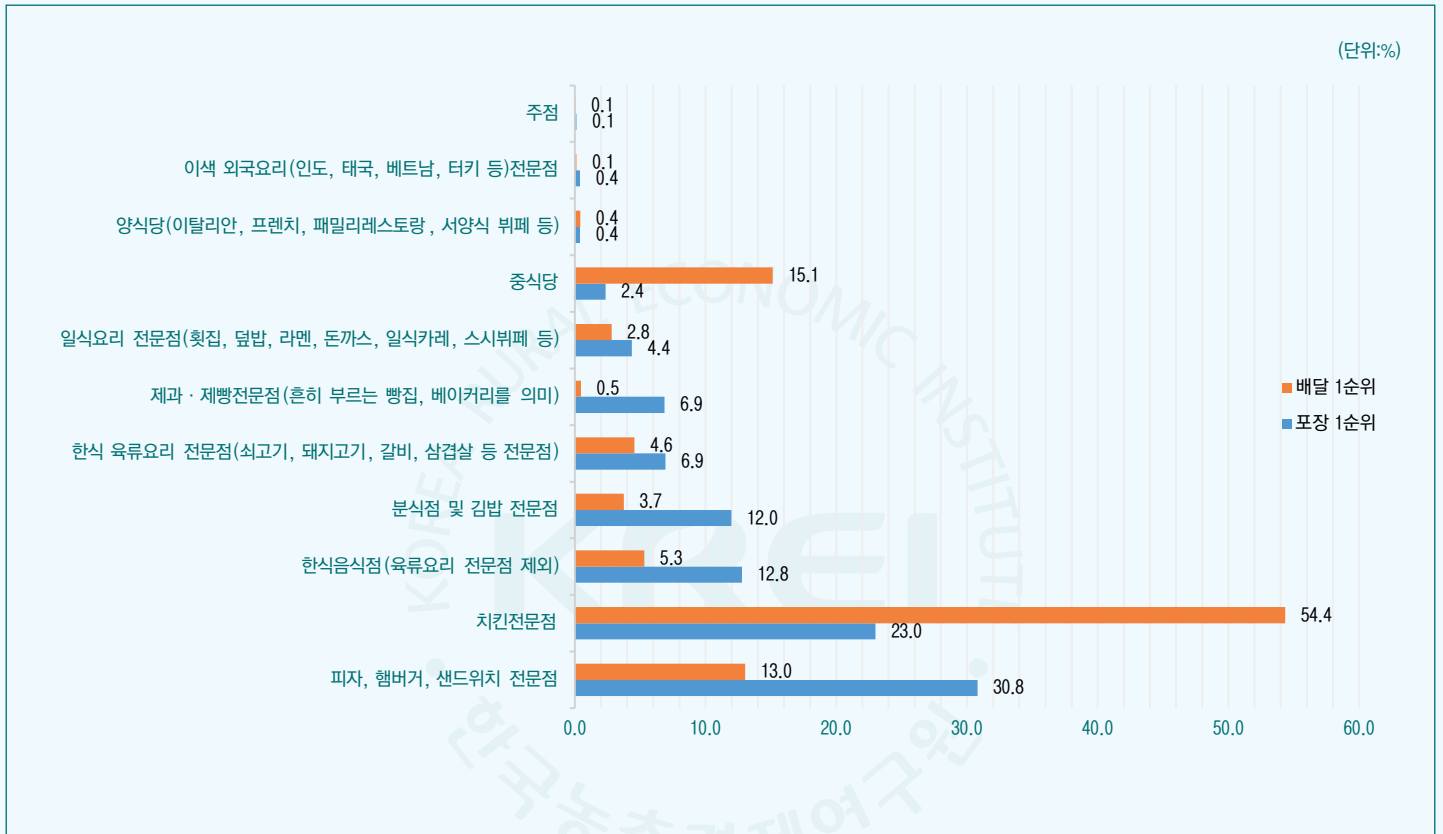
자료: KREI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

02 우리나라 가구의 음식점 및 배달 음식 소비

포장 및 배달주문 1순위 업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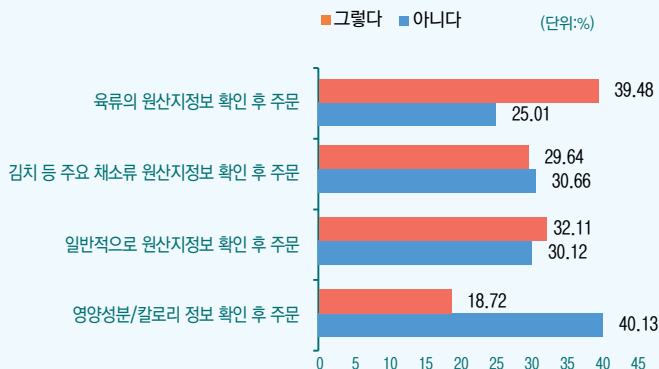
배달음식의 경우 '치킨전문점'이 54.4%, 포장음식의 경우 '피자, 햄버거, 샌드위치 전문점'이 30.8%로 가장 높은 1순위 비중을 차지

- '중식당'이 배달 1순위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15.1%로 높은 편인 반면, 포장 1순위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2.4%에 불과
- '치킨전문점'과 '중식당'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포장 1순위라고 응답한 비중이 배달 1순위라고 응답한 비중보다 높은 특징



자료: KREI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

포장이나 배달주문 시 원산지 확인 행태



전체 응답 가구의 18.7%는 포장이나 배달주문 시 영양성분/칼로리 정보를 확인한 후 주문한다고 응답하였으며, 원산지 확인 비중은 '육류' 39.5%, '일반적인 원산지' 32.1%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

-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보다 영양정보와 원산지 정보 모두에 대해 확인 후 주문한다는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임. 이는 포장이나 배달주문의 특성 상 정보 제공이나 확인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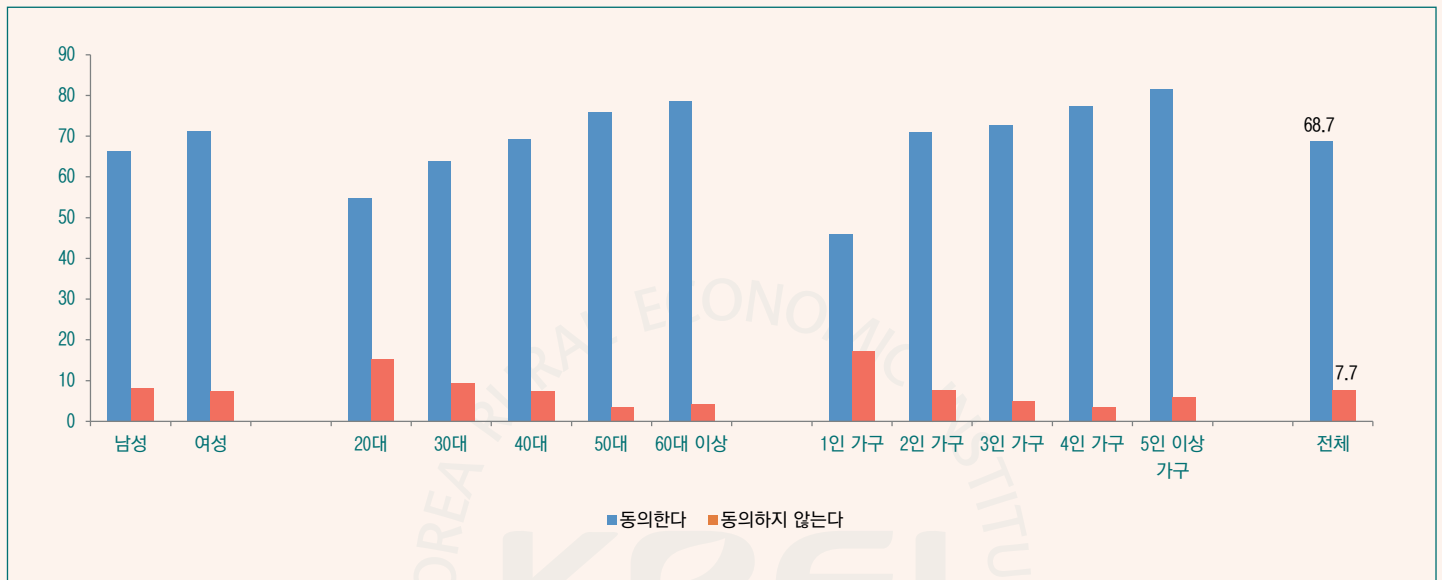
자료: KREI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

03 우리나라 가구의 식생활 현황

가족과의 식사 중요성에 대한 인식

전체의 68.7%가 가족과의 식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, 남성보다 여성이, 연령이 증가할수록, 가구 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족과의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

- 20대의 54.7%만이 가족과의 식사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 반면,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78.6%가 동의
- 2인~5인 이상 가구에서 가족과의 식사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 응답의 비중은 71.1~81.6%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, 1인가구의 경우 46.0%로 동의수준이 매우 낮은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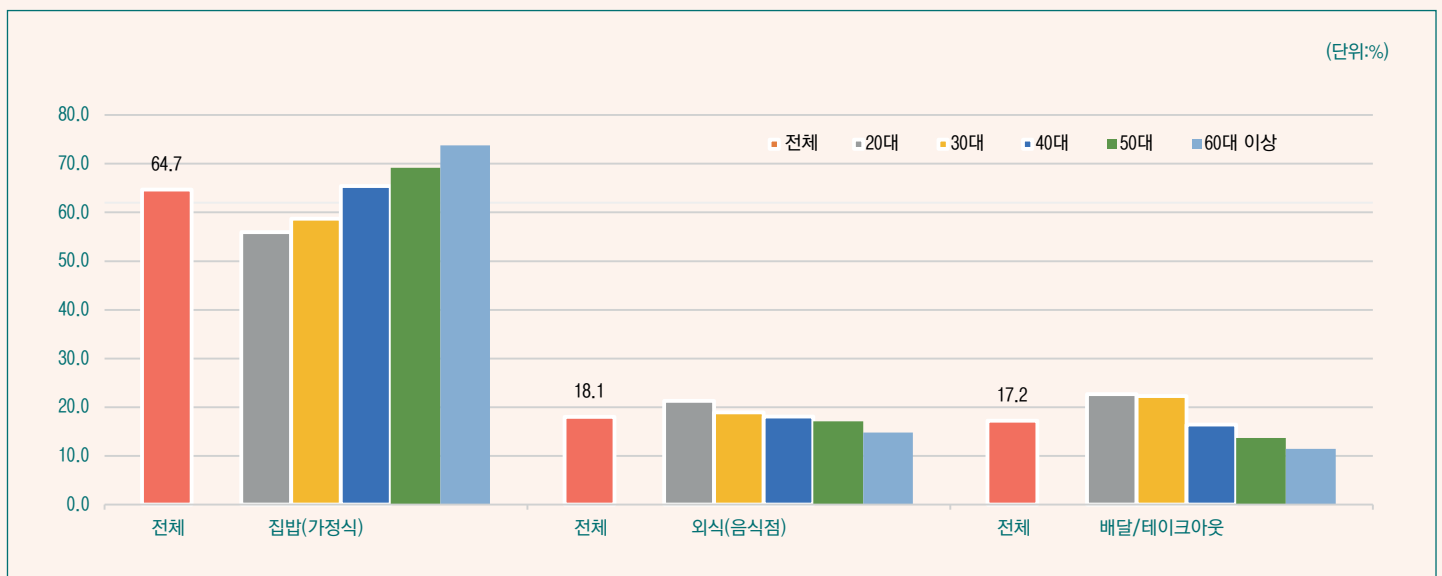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KREI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

바람직한 식사 구성 비율 인식

우리나라 가구에서는 대체로 '집밥(가정식)' 중심의 식생활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유하고 있으며,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

- 20대 젊은 세대에 있어서도 전체 식사 구성의 56%를 집밥(가정식)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
- 20~30대의 경우 배달/테이크아웃이 바람직한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확연히 높은 특징을 보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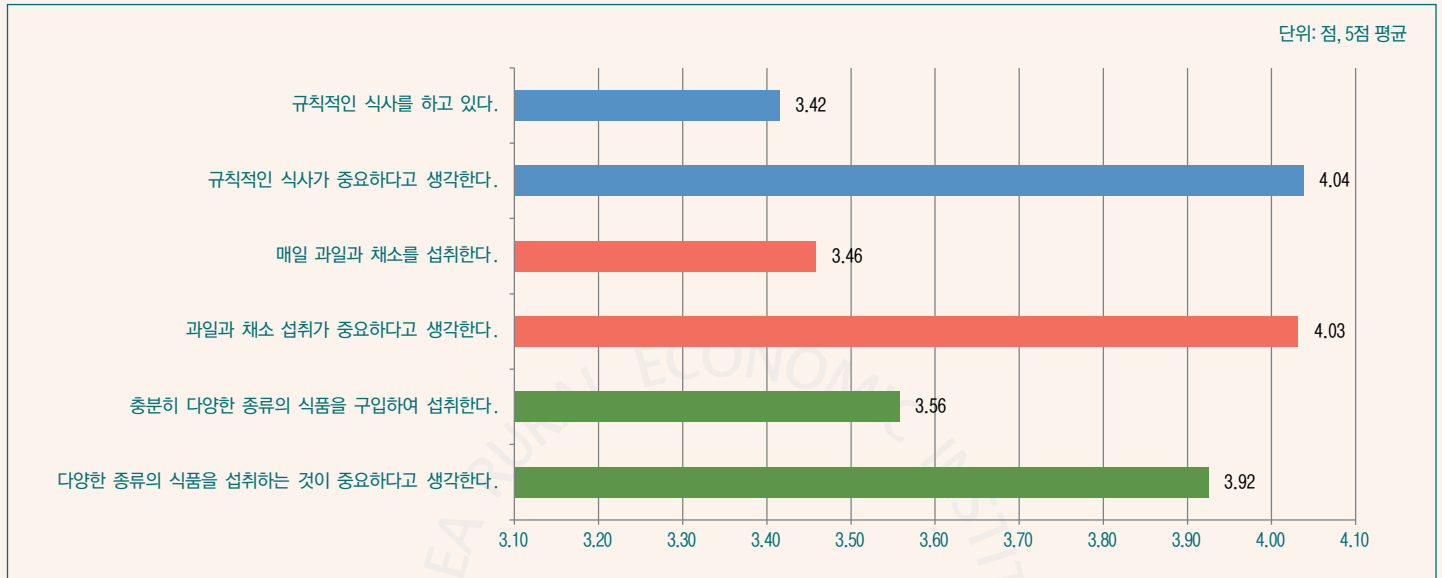
자료: KREI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

03 우리나라 가구의 식생활 현황

식생활 관련 중요성 인식과 실천

규칙적인 식사, 과일/채소 섭취, 다양한 식품 섭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은 높았지만 실제 식생활은 중요도 인식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

- 규칙적인 식사의 경우, 중요도 인식 4.04점, 실천 3.42점
- 과일/채소 섭취의 경우, 중요도 인식 4.03점, 실천 3.46점
- 다양한 식품 섭취의 경우, 중요도 인식 3.92점, 실천 3.56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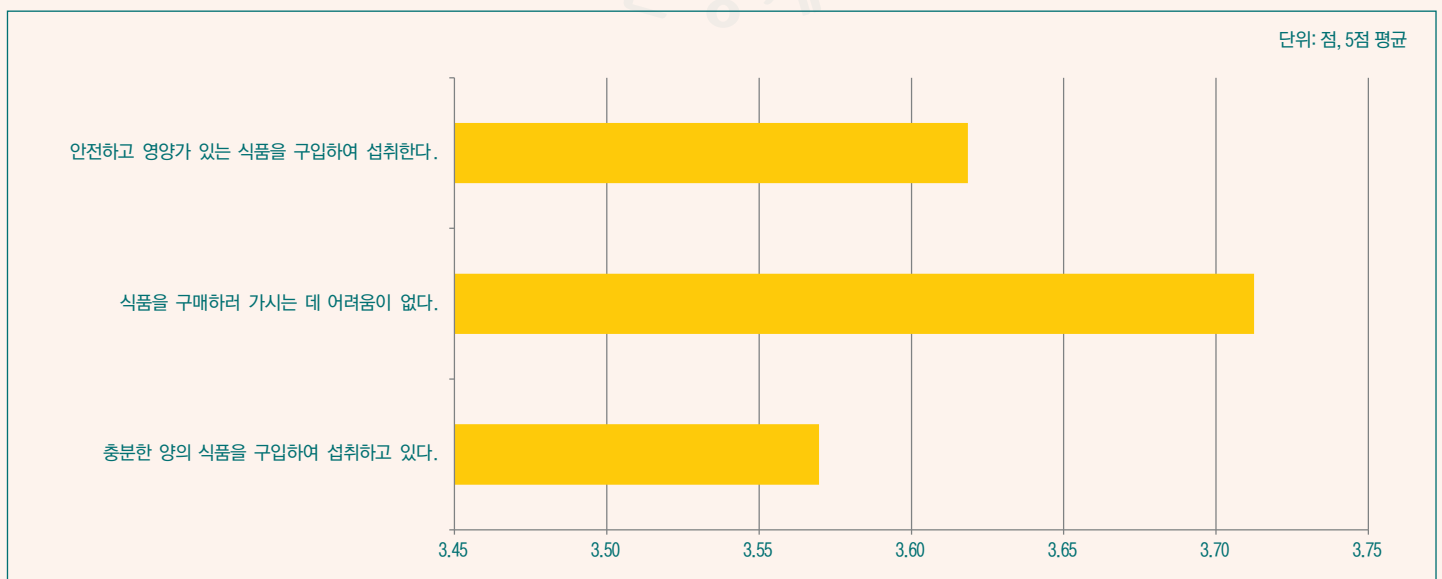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KREI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

우리나라 가구의 식품안전성

식품안전성 측정 문항에서는 3점 중반대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가구의 식품안전성이 높지 않는 수준

-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이용가능성 지표 3.62점
- 식품 구매 접근성 지표는 3.71점으로 3개 지표 중에서는 높은 편
- 식품 구입의 충분성 지표는 3.57점으로 가장 낮은 편
- 2020년 7월 식품안전성 평균점수는 3.63점



자료: KREI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